

# Zola 생윤

첫해~작년까지의

## ebs 수완 문항

## 주제별 모음(2)

## 4~6단원

- 개념 공부+기출 문제 풀이까지 끝낸 분들을 위한 용도임.
- 주제별로 공부하면서 진행해도 되고, 처음부터 쭉욱 봐도 되고, 킬러나 약점 주제 중심으로 봐도 됨. 님들이 알아서 하셈. 1번 풀고 버리면 됨.
- Zola가 답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음. 틀리면 우선 자신을 의심할 것. 그리고 내용 확인할 것. 그래도 이상하다 싶으면 대부분은 Zola가 잘못된 것임. 그러니 반드시 이상한 것은 질문할 것. Zola는 오류가능한 존재임.
- 자원 절약을 위해 1쪽 2면 인쇄 버전으로 설정하였음.  
열공+즐공=대박!!!

### ■ 주제 목차 ■

Zola 생윤 1 - 개념의 모든 것		Zola(김준호) 선생님	
대단원	주제 번호	주제	백지 복습 정도
1	1-1	윤리학 구분	
	1-2	동양 윤리	
	1-3	서양 윤리	
	1-4	도덕적 추론	
	1-5	밀의 자유론	
2	2-1	죽음관	
	2-2	낙태, 안락사, 뇌사, 생명복제	
	2-3	성·사랑	
	2-4	가족 윤리	
3	3-1	직업 사상가	
	3-2	직업 윤리	
	3-3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니부어)	
	3-4	정의 기본+아리스토텔레스	
	3-5	분배정의	
	3-6	소수자우대정책	
	3-7	교정정의	
	3-8	국가관	
	3-9	시민불복종	
4	4-1	과학기술과 윤리	
	4-2	정보윤리	
	4-3	환경윤리(서양의 자연관)	
	4-4	환경문제와 미래세대	
5	5-1	예술	
	5-2	의식주	
	5-3	다문화	
	5-4	종교	
6	6-1	소통 윤리	
	6-2	국제관계론	
	6-3	국제평화론	
	6-4	해외원조	
(넉넉하게) 최소 필요 장+a			

# 4-1

## 과학 기술과 윤리(수완 9강)

zola 풀이!

1[18 ebs 수완]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자연에는 어떤 정해진 법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개체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가지고 자연을 완전히 분해하고 해체해야 한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은 오직 기술과 학문에 달려 있다. 또 자연은 오직 원인을 밝힘으로써만 복종시킬 수 있다.

을: 자연을 에너지원으로 규정하는 현대 과학 기술은 자연을 계산 가능한 힘들의 연관으로 규정하면서 자연을 '담달(받아세움)'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이로 인해 인간은 사물과 이 세계의 근원적 차원, 즉 사물을 생명이 있는 고유한 어떤 것으로 이해했던 세계를 상실했고, 사물은 자신의 창조된 위상으로 성스러운 자리를 지시하던 세계를 상실했다. 이제 인간은 존재 자체의 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모든 존재자의 고유하면서도 소박함을 기쁨과 경이로 맞이해야 한다.

- ① 갑은 과학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자연에 대한 도덕의식의 회복을 보장할 것이라고 본다.
- ② 을은 과학 기술을 통해 자연 세계를 도구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과학 기술에 의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예측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현대 과학 기술이 사물의 근원적인 모습을 볼 수 없게 만들었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과학 기술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이어야 한다고 본다.

2[21 ebs 수완]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과학자의 연구는 가치를 다루는 윤리와는 구분되며, 연구 과정에서 인간의 가치가 개입될 수 없다. 따라서 과학자의 연구는 가치 중립적인 성격을 갖는다.

(나)

전제 ①  
과학자의 연구는 가치를 다루는 윤리와 구분된다.

+

전제 ②  
\_\_\_\_\_ ㉠ \_\_\_\_\_

↓

결론  
과학자의 연구는 가치 중립적인 성격을 갖는다.

- ① 과학자의 연구는 객관적인 관찰과 실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 ② 과학자의 연구는 사회·정치적 요구로부터 독립된 분야이다.
- ③ 과학자의 연구는 논증적 절차를 통해 과학적 지식을 발견한다.
- ④ 과학자의 연구는 기업의 필요나 사회적 이익에 따라 진행된다.
- ⑤ 과학자의 연구는 도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사실의 영역이다.

3[19 ebs 수완] 바나나 아닌 존재를 골라!

오늘날의 과학 기술은 무한한 진보를 거쳐 자연을 파괴하였으며, 이제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과학 기술이라는 권력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인간 자신에게 불행을 끼치지 않도록 통제하여 자신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학을 요청한다. 무엇이 윤리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미리 사유된 위험 자체이다. 전쟁의 처참함을 알지 못하면서 평화를 찬양할 수 있는가?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잘 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우리의 희망보다는 공포로부터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심상치 않은 상황 변화, 위험이 미칠 수 있는 전 지구적 범위, 그리고 인간의 몰락 과정에 대한 징조를 통해 비로소 윤리적 원리들이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들로부터 새로운 권력에 대한 의무들이 도출될 수 있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과학 기술 연구의 허용은 미래 세대와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제한될 수 있다.		✓		✓	✓	
과학 기술을 인류의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동시에 목적 그 자체로 인정해야 한다.			✓	✓		✓
과학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무한한 존속을 위협한다면 그것은 인류 존속이라는 정언 명령에 위배되는 것이다.			✓		✓	✓
과학 기술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사전에 예방 조치를 취해 미래의 생명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	✓	✓

4[13 ebs 수완] 다음 주장을 토대로 제시할 수 있는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날 과학을 지탱시켜 주고 있는 것은 기술적 응용과의 상호 작용이다. 과학은 기술적 응용으로부터 이리저리한 주문을 받는다. 이로 인해 과학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기술의 응용이다. 한편 과학은 문제 해결과 자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선진 기술을 사용한다. 즉, 기술의 물리적 수단에 대한 과학 의존도는 더욱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 기소재와 그것의 사용에 드는 비용은 외부에서 기부금 형태로 조달한다. 이런 식으로 성립된 경제 관계는 공적 자금 혹은 그 밖의 재정적 후원을 요구하기 마련이고, 이런 토대 위에서 수행되는 연구 프로젝트는 시간이 흐른 뒤 현실 영역에서 창출되는 이윤을 자연스레 기대하기 마련이다.

- ① 과학 기술의 힘은 유토피아를 실현시킬 수 있다.
- ② 전통 윤리의 틀 내에서 과학 기술 윤리를 정립해야 한다.
- ③ 과학 기술은 현실적으로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 ④ 유용성이 높으므로 모든 종류의 과학 기술을 허용해야 한다.
- ⑤ 과학적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참과 거짓의 판단만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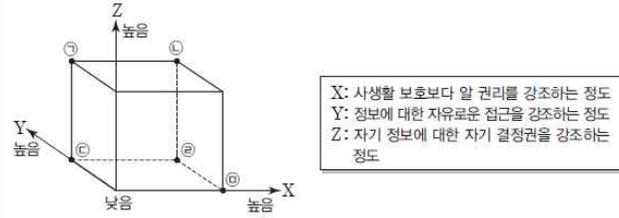




16)[21 ebs 수완]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갑: 저의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제 집이 빛 때문에 경매로 넘어갔는데, 이 기사가 지금도 인터넷에서 계속 검색이 됩니다. 과거의 일 때문에 현재 고객들도 저에 대해 신뢰를 갖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저는 저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을: 아닙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재판과 관련된 중요한 임무를 맡을 변호사에 대해 상세히 알 권리를 가집니다. 고객이 변호사를 선택할 때 변호사의 과거에 대한 정보가 고객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7)[19 ebs 수완]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의 특징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와 인스턴트 메신저 등을 통해 얼굴을 보지 않고도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때에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해 왔기 때문에 신속한 반응을 추구하여 즉각적인 피드백에도 능숙함을 보인다. 더불어 그들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필두에 자리한 가상의 자기 공간에서도 '청중'이기보다는 '주연 배우'가 되기를 원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의견을 주고받고 싶어 한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일상 자체를 놀이나 게임처럼 인식하여 도전적이고 재미있을 때 훨씬 더 적극적으로 몰입하는 특성을 보이며, 이를 자신의 직업으로 삼아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기도 한다.

**보기**

- ㄱ. 기존 세대에 비해 대면적인 인간관계에 의한 친밀감을 중시한다.
- ㄴ. 개방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능숙하다.
- ㄷ. 자신이 원하는 삶에 도전적이며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
- ㄹ. 흥미 위주의 놀이와 생산적인 노동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삶을 지향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 4-3

## 자연과 윤리 4대 이론 '만' (수완 11강)

☛ Zola Guide (1) 바나나 좀 없애주면 안 되겠니? (2) 동·서양의 자연관이 함께 나올 수도 있음.

zola 풀이!

18)[18 ebs 수완] 골라!

갑: 오히려 동물은 정신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각 기관의 배치에 따라서 작동하는데, 이것이 바로 자연이다. 이것은 마치 시계가 톱니바퀴와 태엽만으로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뛰어난게 시간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것과 같다.

을: 인간은 오직 인간에 대해서만 의무를 지닌다. 순수하게 이성에 따라 판단해 보면,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는 어떤 의무도 지지 않는다. 만약에 인간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에 대해 의무를 지닌다면, 그것은 도덕적 성찰의 개념에 대한 혼동으로부터 초래된 것이다. 그러한 다른 존재에 대한 의무는 단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일 뿐이다.

**보기**

- ㄱ. 갑은 이성적 존재인 인간을 자연과 분리하여 이분법적으로 볼 것을 주장한다.
- ㄴ. 갑은 자동 기계인 자연과 동물이 인간의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 ㄷ. 을은 도덕적 성찰 능력이 결여된 동물도 인간에게 간접적 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 ㄹ. 갑, 을은 인격체가 아닌 자연을 지배와 소유의 관점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19)[22 ebs 수완]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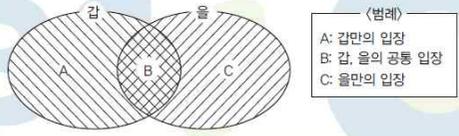
자연 중에 생명이 없으면서도 아름다운 것에 대한 한갓된 파괴의 성벽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반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도덕적인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도덕성을 매우 촉진하고, 적어도 그를 위해, 곧 무엇인가를 유용성에 대한 고려 없이도 사랑하도록 준비시키는 감성의 정조인, 인간 안의 감정을 약화시키거나 절멸시키기 때문이다.

- ① 이성적 존재만이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 ② 비이성적 존재는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 ③ 자연 파괴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의무에 위배된다.
- ④ 자연 파괴의 성향은 도덕적 소질 계발의 의무 수행을 저해한다.
- ⑤ 도덕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존재는 도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20[17 ebs 수완]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가) 갑: 많은 동물들이 어떤 행동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재주를 보여 주지만 다른 행동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볼 때, 동물들이 우리보다 더 잘한다는 것이 그들이 정신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동물들은 그들의 정신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들 속에 있는 기관들의 배치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 자연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바퀴와 태엽만으로 만들어져 있는 시계가 우리가 온갖 재주를 기울이는 이상으로 정확하게 시간을 켤 수 있는 것과 같다.

을: 그 모든 것에 대해 인류의 실존은 항상 우선적이다. 실존을 통해 자기 규제의 가능성과 초월적인 가능성을 항상 모두 열어 놓아야 한다. 우주적 책임으로서의 이 가능성의 보존은 바로 실존에의 의무를 의미한다. 인류의 실존은 간단하게 인류가 살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류가 잘 산다는 것은 다음의 명령이다. '인류가 존재한다.'라는 적나라한 존재적인 사실은 이 점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 '인류가 계속 존재해야 한다.'라는 존재론적 명령이 된다.

(나) 

**보기**

- ㄱ. A: 생명을 가진 존재들의 고유한 선을 동등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본다.
- ㄴ. B: 자연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반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 ㄷ. B: 유기체와 함께 무기물도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 ㄹ. C: 인간은 이분법적 시각으로 자연을 다루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21[19 ebs 수완] 틀린 것을 골라야 함!

갑: 도덕적 행위자는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 능력, 도덕성에 따른 자유로운 행동 능력, 행위자의 도덕성에 대한 인지 능력을 모두 지닌다. 도덕 무능력자는 체계적이고 명료하게 설명하는 능력과 적절한 도덕 원리를 숙고하여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도덕적 행위자만이 옳거나 그른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도덕 행위자가 도덕적 무능력자의 도덕적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삶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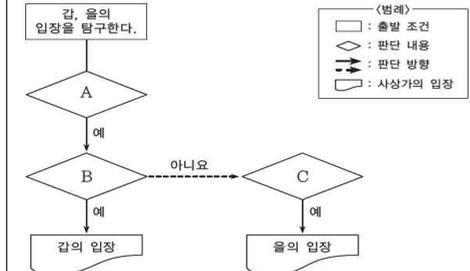
을: 인간이 지닌 어떤 장점이나 특성을 가지고 인간이 다른 나머지 생명 종(種)의 구성원들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구의 생명 공동체라는 사고와 모든 생명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사고에 비추어 볼 때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자신의 선을 갖는 존재는 그 존재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도덕적 배려를 받을 만한 자격을 의미한다.

- ① 갑: 내재적 가치를 지닌 개체는 그에 상응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 ② 갑: 인간이 아닌 성장한 포유동물은 도덕적 무능력자이지만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 ③ 을: 목적론적인 삶의 중심은 특정한 생명 종이 아니라 개별 생명체 각각이다.
- ④ 을: 생명 공동체의 안정성은 모든 존재의 목적이므로 그 자체로서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다.
- ⑤ 갑, 을: 인간의 이익을 위해 인간 아닌 존재에게 무분별하게 해악을 입히는 것은 옳지 않다.

22[14 ebs 수완]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과 같이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갑: 인간의 복지 및 권리와 동식물의 종 및 야생 자연 환경의 보전이 명백히 충돌할 경우에 인간의 복지 및 권리 존중이 우선되어야 한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 권리와 의무는 인간의 도덕적 권리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면 만족스럽게 설명될 수 있다.

을: 진정한 윤리인에게 있어서 일체의 생명은 신성한 것이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저급하게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생명 간에 차이를 둔다는 것은 때때로 필연성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한다.

(나) 

- ① A: 인간을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하는가?
- ② B: 전통적인 인간 중심의 윤리를 지켜야 하는가?
- ③ B: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보아야 하는가?
- ④ C: 자연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 ⑤ C: 모든 생명은 인간의 주관적 판단과 관계없이 가치를 지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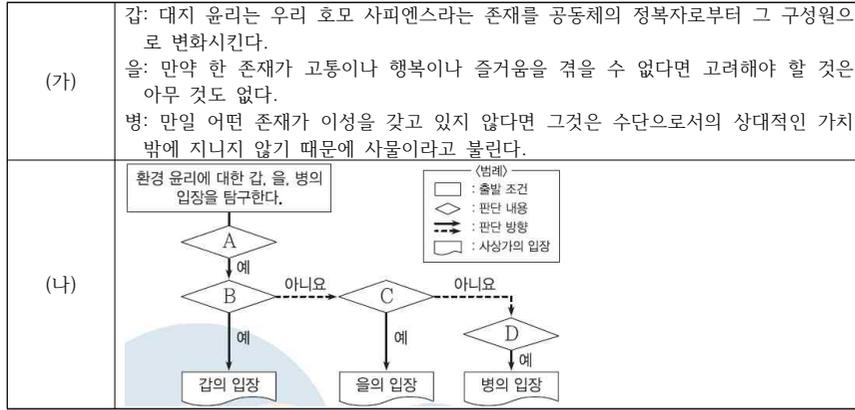
23[18 ebs 수완] 다음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우리는 갯가재나 계가 고통스러운 자극에 반응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들은 신경 조직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실제로 고통을 의식하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최근 자료에 의하면 그들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동물에 대한 윤리적 판단 및 그들의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때 고려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우리가 동물들을 얼마나 귀여워하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닭이나 돼지고기를 먹을 때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해 그들의 고통을 줄여 주어야 하며, 그들에게 가장 나은 삶을 살게 해 주는 것은 공리주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 ① 인간만을 우대하는 종(種) 차별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하는가?
- ② 유인원은 물론 일부 동물이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고 보아야 하는가?
- ③ 일관성 있는 도덕 판단을 위해서는 동정과 연민을 중시해야 하는가?
- ④ 고통에 대한 감각 능력의 여부를 도덕적 고려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 ⑤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채식 위주의 음식 습관을 갖는 것은 바람직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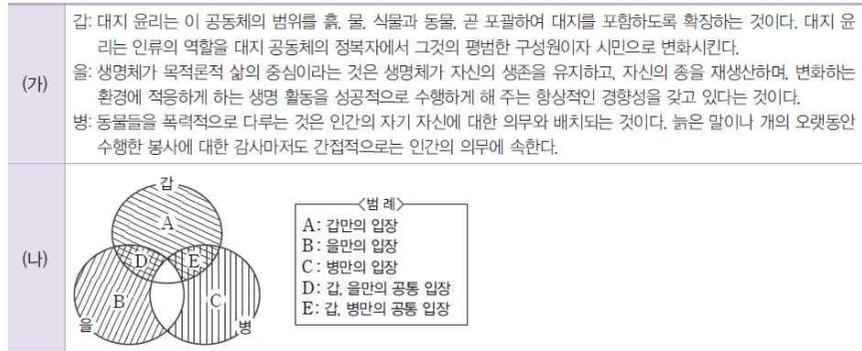
24[15 ebs 수완] (가)의 갑, 을, 병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보기>

- ㄱ. A: 인간은 동물을 학대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지니는가?
- ㄴ. B: 무생물도 도덕적 존중을 받을 자격을 지니는가?
- ㄷ. C: 모든 생명체가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임을 인정해야 하는가?
- ㄹ. D: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임을 인정해야 하는가?

25[21 ebs 수완]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E에 해당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도덕적 고려를 받을 가치가 있다.
- ② B: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해당한다.
- ③ C: 인간이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비난받을 행위가 아니다.
- ④ D: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생명 공동체의 평등한 구성원이다.
- ⑤ E: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니다.

26[17 ebs 수완] 갑, 을 사상가가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자연의 품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다른, 유추조차 불가능한 정도의 기상천외한 보물들이 인간에게 실제로 이용될 날을 기다리며 수없이 묻혀 있다. 학문과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인간은 언젠가 틀림없이 이것들을 유용하게 사용할 것이다.

을: 산다는 것은 식물에게까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성으로서, 인간에게만 고유한 것은 아니다. 감각을 동반하는 삶도 있지만 그러한 삶은 말과 소, 모든 동물들에게도 공통되는 삶이다. 그렇다면 이성을 가지고 실천적으로 사는 삶만이 인간의 고유한 영역으로 남게 되며 그러한 삶만이 가치 있다.

- ① 생명 간의 위계 서열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가?
- ② 쾌고 감수 능력을 도덕적 배려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 ③ 인간은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보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가?
- ④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일 때 존재 의미를 갖게 되는가?
- ⑤ 인간은 모든 생명체의 이익 관심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하는가?

27[16 ebs 수완]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도덕적 행위자나 도덕적 무능력자 모두 도덕적 지위와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고유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며, 고유한 가치를 갖는 것의 근거는 그들이 모두 삶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 (중략) ... 인간을 포함하여 동물들을 삶의 주체로 간주해야 한다.

을: 인간만이 권리를 지니고 행사할 수 있는 존재이다. 만약 동물에게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고 한다면, 동물들이 자기의 도덕적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가질 수 없다. 동물은 권리를 행사할 만한 아무런 능력도 지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① 인간의 이익 증진을 위한 동물 실험은 정당한가?
- ②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도덕적 권리를 지닌 존재로 간주해야 하는가?
- ③ 쾌고 감수 능력은 동물의 도덕적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인가?
- ④ 동물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 행위할 수 있기 때문에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가?
- ⑤ 동물을 인간의 이익이나 욕구와 관련시켜서만 가치를 지닌 존재로 보아야 하는가?

28[13 ebs 수완]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장: [ ㉠ ]

반론: 당신의 의견대로라면 소나 양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울창한 삼림을 베어 목초지로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식물과 생태계의 훼손을 원리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야생 동물과 가축 사이에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음으로써 가령 돼지와 닭이 꿈이나 늑대와 동일한 도덕적 존중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멸종에 처해 있거나 희귀한 종의 보종에 대해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 ①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로서 생태계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개별적인 생명체들보다 그들이 속한 생명 공동체를 우선해야 한다.
- ③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이 지닌 고유한 선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 ④ 인간을 포함한 고등 동물들 각각은 삶의 주체로서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
- ⑤ 지구 생태계는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33[22 ebs 수완]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고통을 받거나 기쁨을 얻는 능력은 이익 일반을 가지기 위한 전제이며, 우리가 어떻게든 의미 있게 이익을 논하기 앞서 충족되어야만 하는 조건이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우리 종족에 속하는 타자들과의 관계에 적용되는 타당한 도덕적 근거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또한 우리 종족이 아닌 것들, 즉 인간이 아닌 동물과의 관계에도 적용되는 타당한 도덕적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을: 진정한 윤리인에게 일체의 생명은 신성한 것이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저급하게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생명 간에 차이를 둔다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한다. 그러한 경우가 있더라도 희생을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한다.

병: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복지와 번성은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 이러한 가치는 인간의 목적을 위한 유용성과 무관하다. 생명체의 필요로움과 다양성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 인간은 불가결한 필요 종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필요로움과 다양성을 해칠 권리가 없다.

(나)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탐구한다.

보기

ㄱ. A: 긍정성을 지닌 존재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ㄴ. B: 생태계 속에서 모든 생명체는 본질적으로 평등한가?  
 ㄷ. C: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되는가?  
 ㄹ. D: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연의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5-1~5-2

예술+의식주(수완 12강+13강)

zola 풀이!

34[17 ebs 수완]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눈이 보기 위해 있는 것이라면 아름다움이란 있기 위해 있는 것이다. 진실로 아름다운 것이란 단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예술이란 그 미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며 미적인 것 외에 다른 가치를 위해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을: 아름다운 것은 도덕적 선의 상징이다. 바로 이 점에서 아름다움은 만족을 주며, 다른 모든 사람에게 동의의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감각적 쾌락을 넘어서 순화되고 고요된 고귀함을 느끼게 된다.

병: 아름다움은 대상의 완전함, 즉 정확한 비례와 균형에서 나온다. 진리가 완전하듯이 미 역시 완전해야 하고, 이는 동시에 도덕적인 충음을 뜻한다. 예술은 진리를 모방하는 것이므로 예술가들은 선을 자신의 작품 속에 담아야 한다.

- ① 갑은 예술은 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 ② 을은 도덕적으로 선한 삶에는 미의 가치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 ③ 병은 예술은 독립된 영역으로서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본다.
- ④ 갑은 병과 달리 예술의 가치가 윤리의 개입으로 훼손될 수 있다고 본다.
- ⑤ 을, 병은 예술이 도덕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35[18 ebs 수완]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팝 아트는 플라 같은 것입니다. 돈을 더 낸다고 더 좋은 콜라를 마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더 내면 수가 많아지지 내용이 좋아 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같은 것을 마십니다. 대통령이 마시는 콜라든,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마시는 콜라든, 길거리 건달이 마시는 콜라든 모두 같은 것입니다. 평등하고 쉽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는 것은 가장 환상적인 예술입니다. 히피가 유행하던 시절의 사람들은 비즈니스의 개념을 격하했습니다. 히피들은 "돈은 더러운 것이다." 또는 "일하는 것은 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돈 버는 일은 예술이고, 일하는 것도 예술이며, 돈을 잘 버는 비즈니스가 최고의 예술입니다.

- ① 예술에 거대 자본이 개입하면 예술의 수준이 저하된다.
- ② 예술은 사회의 도덕성을 고양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녀야 한다.
- ③ 예술 작품의 가치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 ④ 예술은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중이 함께 즐기는 것이다.
- ⑤ 예술이 표준화되고 획일화되지 않도록 고유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36)[21 ebs 수완] 학생 답안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미(美)의 판단과 선(善)의 판단은 각기 고유성과 독자성을 지니고 있지만 형식에서 동일하므로 상징의 관계로 연결될 수 있다. 요컨대 둘 다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태도를 반영하고 있고, 둘 다 보편적인 민족의 감정을 연출하며, 둘 다 타율적 힘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자유의 체험을 내포하며, 둘 다 보편적인 타당성을 요청한다.  
 을: 시(詩)는 미의 운율적인 창조이다. 시적 목적은 지성이나 도덕으로부터 해방되어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데 있다. 시는 진실을 반영하거나 확산시키는 데 몰두해서는 안 된다. 시는 시일 뿐이며 다른 그 무엇도 아니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도덕이 예술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미적 체험이 도덕성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을은 ㉢예술이 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고, ㉣예술미는 본질적으로 도덕과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갑, 을은 모두 ㉤예술이 자율적 영역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7)[16 ebs 수완] 다음 글의 사상적 관점에 부합하는 주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음악이란 천하를 크게 가지런하게 하는 것이며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하는 바탕이어서 사람의 정서상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왕(先王)이 음악을 만든 것이다. 무릇 음악은 사람의 감정에 파고들어 깊고 감화시키는 속도가 빠르다. 그러므로 선왕이 형식을 신중히 하셨다. 음악이 조화롭고 평온하면 백성은 화합하여 혼란한 태로 흐르지 아니하고 음악이 엄숙하고 장엄하면 백성은 가지런하여 어지럽지 않게 된다. 음악이란 사람을 다스리는 데 있어 효과적이다.

주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음악은 선(善)보다 미(美)를 중시해야 한다.	V			V	V
음악은 외재적인 가치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V	V		V	
음악은 올바른 품성의 도야에 기여해야 한다.			V		V
음악은 도덕과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		V	V	V	V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38)[22 ebs 수완]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음악[樂]이 바르고 반듯하며 화평하면 곧 백성들은 화합하며 빛나가지 않게 되고, 음악이 엄숙하고 장중하면 곧 백성들은 질서가 있어 어지럽지 않게 된다. 음악이란 천하를 바로잡는 것이고 알맞게 조화시키는 규범이며, 선왕(先王)이 예(禮)와 음악으로 이끌면 백성들이 화목하게 된다.  
 을: 음악을 비난하는 이유는 큰 종이나 북과 같은 악기의 소리가 즐겁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 아니다. 음악이 백성들의 이로움에 부합된다면 비난받지 않을 것이다. 진실로 선비와 군자들이 천하의 이로움을 일으키고 천하의 해를 제거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음악과 같은 물건을 금해야 한다.

- ① 갑: 통치자는 예와 음악이 서로 무관함을 깨달아야 한다.  
 ② 갑: 음악은 백성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다스리는 방편이 될 수 있다.  
 ③ 을: 통치자는 백성들의 삶과 무관하게 음악을 즐겨야 한다.  
 ④ 을: 음악은 백성들의 즐거운 감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해로운 것이다.  
 ⑤ 갑, 을: 음악은 백성들의 이익을 증진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39)[22 ebs 수완] 있는 대로 골라!

미적 체험을 통한 자유와 도덕의 전제인 자유는 서로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이기적 욕구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미적인 것은 윤리적으로 좋은[善] 것의 상징이며,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미적인 것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한갓된 감각적 쾌락을 넘어서 순화되고 고양된 의식을 느끼며, 사람들의 비슷한 준칙에 따라서 다른 모든 것들의 가치를 판단한다. 미적 즐거움은 감성적인 것으로부터 순수 이성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보기

- ㄱ. 도덕적인 판단과 미적인 판단은 그 형식이 유사하다.  
 ㄴ. 미적인 체험은 도덕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ㄷ. 미적인 체험은 주관적인 체험으로서 보편성을 가질 수 없다.  
 ㄹ. 미적인 것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도덕적 판단에 종속되어야만 한다.

40)[22 ebs 수완]

다음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음(音)이란 사람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다. 악(樂)이란 만물의 종류의 구분에 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리만을 알고 음을 알지 못하는 것은 금수이고, 음을 알되 악을 알지 못하는 것은 소인이니, 오직 군자만이 악을 알 수 있다.
- 악은 천지의 조화이며 예(禮)는 천지의 질서이다. 조화로운 까닭에 온갖 사물이 다 변화하고, 질서가 있으므로 온갖 만물이 구별된다. 악은 하늘을 말미암아 만들어졌으며, 예는 땅의 법칙을 본받아 만들어졌다. 잘못 만들게 되면 어지럽게 되고, 잘못 지으면 난폭하게 된다. 천지의 이치에 밝은 뒤에야 예악(禮樂)을 일으킬 수 있다.

보기

- ㄱ. 음악은 심미적 즐거움의 추구만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 ㄴ. 음악은 도덕적 가치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가치를 갖는다.
- ㄷ. 음악과 예를 조화롭게 체득하면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다.
- ㄹ. 음악에 대한 앎을 기준으로 소인과 군자를 구분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41)[19 ebs 수완] 틀린 것을 골라줘

갑: 몇몇 소수의 사람이 유행을 덜 앞서가는 사람들과 자신들의 차이를 주장하려는 욕구에 의해 새로운 스타일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점차 많은 사람이 그 스타일을 수용하기 시작한다. 마침내 아무도 다르지 않게 된다. 그 스타일을 수용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에게조차 우습게 보인다. '저 사람들'은 이제 이상하지 않고 자신이 이상하다. 대중의 취향이 그리고 개인의 취향이 변한 것이다.

을: 돈벌이나 여타 실용적 목적에 전혀 부응하지 않는 관계나 예의범절을 능숙하게 구사하고 그것을 고도로 습관화했다는 증거를 뚜렷하게 보이는 사람일수록 그것을 익히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자산을 많이 들였다는 뜻이 되고, 이는 금력을 자랑하는 신호가 된다. 고상한 예절과 생활 방식은 과시적 여가와 과시적 소비의 기준에 부합하는 조건이다.

- ① 갑은 대중의 소비 행태에서 타인과의 동조화가 강화된다고 본다.
- ② 갑은 대중이 익명의 다수에 의해 강요되는 집단 규범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 ③ 을은 상류 계층이 대중화된 소비를 지향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얻는다고 본다.
- ④ 을은 상류 계층이 소비를 통해 자신의 과시욕이나 허영심을 드러내려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대중의 소비 행태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소비 행위는 아니라고 본다.

42)[17 ebs 수완, Good] 갑의 사상적 관점에서 <문제 상황>의 A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갑: 지각, 욕구, 기억과 미래에 대한 생각, 그리고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가진 존재들은 삶의 주체로서 존중받을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권리를 가진 개체들은 결코 마치 다른 것들을 위한 자원인 것처럼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다른 것들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문제 상황>

방송 프로그램에서 동물 도축 장면을 보게 된 A는 인간의 육식을 위해 수많은 동물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고기를 먹지 말고 채식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보기

- ㄱ. 육식은 동물도 인간처럼 삶의 권리를 지닐 수 있음을 부정하는 것임을 깨달으렴.
- ㄴ. 인간은 동물을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육식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렴.
- ㄷ. 식용 동물도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채식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함을 자각하렴.
- ㄹ. 채식을 결정하는 판단 기준이 동물에게 가해지는 고통의 경감 여부가 되어야 함을 인식하렴.

43)[22 ebs 수완]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지혜롭게 사려하면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음식을 먹는 것은 즐기 위해서도 아니고, 취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과시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단지 이 몸을 지탱하고, 존속하고, 잔인함을 쉬고, 청정범행(淸淨梵行)을 잘 지키기 위함이다.

을: 닥치는 대로 음식을 먹는 것은 본성적인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당량 이상으로 배를 채우는 사람은 폭식가라는 말을 듣게 되고, 노예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쾌락에 관해 지나친 것은 방종이고 비난할 일임에 분명하다. 절제하는 사람은 쾌락과 관련하여 중용을 지킨다.

- ① 갑은 먹는 행위를 통해서도 수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 ② 갑은 먹는 행위의 목적이 생존 유지 이외에는 없다고 본다.
- ③ 을은 먹는 행위에도 마땅한 때와 마땅한 방법이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먹는 행위가 지나칠 경우에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먹는 행위가 본능만을 따르는 것이 아닌 절제가 필요한 행위라고 본다.

44)[22 ebs 수완]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안정적 공간을 지님으로써 낯선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평화와 안전 속에서 살 수 있고, 외부 세계의 소  
 요로부터 후퇴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거주는 더 이상 임의적인 위치의 낯선 자로서 낯선 공간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거주는 단순히 존재하거나 어디에 머무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공  
 간 속에서 고정된 자리를 갖고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인간은 이러한 거주를 통해 그의 삶의 밑바  
 탕이 되는 기초를 발견할 수 있고, 그 기초 위에서 다양한 인간관계의 근거가 되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거주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며, 거주 공간의 피상적인 소유를 통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의 본질을 실현하게 하는 거주는 인간의 분명한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 ① 거주는 인간이 집에 머무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 ② 집은 인간을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시켜 주는 고립된 공간이다.
- ③ 거주는 고정된 공간에서 안락을 얻으며 삶의 기초를 찾는 것이다.
- ④ 거주는 인간의 본능이므로 거주에 참된 의미를 배울 필요가 없다.
- ⑤ 인간은 집을 소유하기만 하면 저절로 거주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 5-3~5-4

다문화 · 종교와 윤리(수완 13강)

zola 풀이!

45)[20 ebs 수완]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인간이 성스러움[聖]을 아는 것은 그것이 속된 것[俗]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으로서 스스로를 현현(顯現)하여  
 보여 주기 때문이다. 성스러움이 현현함으로써 사물은 어떤 전혀 다른 것이 되는데, 그러나 그 후에도 의연히  
 그 사물은 변하지 않는다. 종교적 경험을 가진 인간에게는 모든 자연이 우주적 신성성으로 계시된다. 그런데  
 성스러운 돌, 성스러운 나무는 돌이나 나무로서 숭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은 그것이 성현이  
 기 때문이며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 성스러운 것, 전혀 다른 어떤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 ①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은 단절되어 있다.
- ② 세계에 있는 자연물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된다.
- ③ 성(聖)이 현현되는 세계는 초월적 존재 그 자체이다.
- ④ 인간은 체험이 아니라 상상을 통해서 성스러움을 만나게 된다.
- ⑤ 자연의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성(聖)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구현된다.

46)[15-6] 문장 O, X

인간은 궁극적 존재에 대해 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묻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묻는 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과 분리된 궁극적 존재의 힘에 속하여 있기 때문이며, 또한 자신이 그 궁극적 존재에 속하여 있음과 동시에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이 모두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 ① 인간은 궁극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수용해야 한다.
- ② 인간은 감각적 경험을 진리의 토대로 수용해야 한다.
- ③ 인간이 초월성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47)[19 ebs 수완] 틀린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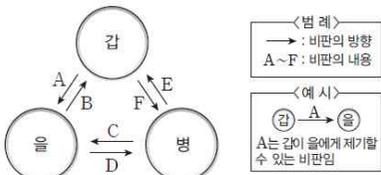
성스러움[聖]이 현현(顯現)함으로써 사물은 어떤 전혀 다른 것이 되는데, 그러나 그 후에도 의연히 그 사물임  
 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후에도 우주적인 환경 세계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적 경험을  
 가진 인간에게는 모든 자연이 우주적 신성성으로 계시된다. 그때 우주는 전체가 성현(聖顯)이 되는 것이다.  
 ...[중략]... 성스러운 나무나 성스러운 돌은 돌이나 나무로서 숭배되는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숭배되는 것이다.

- ① 세계 자체가 성스러움으로서의 신이다.
- ② 세속과 성스러움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 ③ 성스러움이 계시된 것은 숭배의 대상이 된다.
- ④ 인간은 현실에서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다.
- ⑤ 성스러움 자체는 인간의 감각을 초월해 존재한다.



52)[20 ebs 수완] (가)의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갑: 이주민의 문화와 같은 소수 문화를 주류 문화에 적응시키고 통합시켜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 것이다.  
 을: 이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되 주류 문화를 우위에 두고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사회적 통합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병: 이주민의 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가 평등한 지위를 지니면서 각각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참된 사회적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나) 

Legend:  
 <법례>  
 → : 비판의 방향  
 A~F : 비판의 내용  
 <예시>  
 (갑) → (을)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

- ① A, F: 이주민의 고유한 문화와 자율성을 존중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② B, E: 다양한 문화가 사라져 문화적 역동성이 파괴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③ C: 이주민 문화가 동등한 자격으로 존중되어야 사회 통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④ D: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위해서는 주류 문화가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⑤ F: 이주민 문화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53)[18 ebs 수완]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세계는 성스러운 것, 존재의 다양한 양태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무엇보다도 세계는 실존하고, 실제로 거기에 있고, 그리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세계는 신들의 작품인 피조물로 자신을 드러낸다. 이 신의 작품은 스스로 성스러운 것의 여러 양상을 제시한다. 여러 가지 우주의 리듬은 질서, 조화, 항상성, 풍요성을 명백히 드러낸다. 우주는 전체로서 실재적이고 살아 있고, 또한 성스러움을 지닌 유기체이다. 즉 그것은 존재와 신성성의 여러 양태를 제시한다. 현존재와 성현(聖顯)이 서로 만나는 것이다.

**보기**

- ㄱ. 인간은 현실의 삶에서 초월적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다.
- ㄴ. 인간의 감각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궁극적 실재가 존재한다.
- ㄷ.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은 상호 모순적인 관계에 있다.
- ㄹ. 자연이 지니는 성스러움은 과학적 탐구를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다.

# 6-1~6-2

갈등 해결과 소통, 민족 통합, 국제관계(수완 14강+15강)

zola 풀이!

54)[20 ebs 수완] 알아서 골라.

○○ 신문 ○○○○ ○월 ○일

**칼럼**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의 충돌로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갈등은 사회 발전의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사회 통합과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한다. ... (중략)... 한국의 어떤 불교 사상은 '원융회통(圓融會通)' 사상을 제시하며, 대립과 갈등의 관계에 있는 사상과 논리도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갈대 구멍으로 하늘을 본 사람이 그 갈대 구멍으로 하늘을 보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모두 하늘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며, 자기만의 주장에 집착하는 사람을 비판하였다. 현대인들은 이러한 주장에 비추어 혹시 자신이 '갈대 구멍으로 본 하늘'만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아야 한다.

**보기**

- ㄱ. 대립 관계에 있는 개인들의 가치관은 더 높은 차원에서 통합될 수 있다.
- ㄴ.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는 편견에서 벗어나 타인의 생각을 존중해야 한다.
- ㄷ. 사회 구성원 다수의 지지를 받는 합의 도출을 위해 소수 의견은 배제해야 한다.
- ㄹ. 집단 간의 논쟁은 집단 이익에 대한 집착에서 발생하므로 상호 간 조화될 수 없다.

55)[20 ebs 수완] 알아서 골라.

갑: 어떤 행위의 준칙이 너의 의지에 의해 보편적 자연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위 해야 한다. 단지 우리가 자신을 위해, 경향성의 이익을 위해 법칙에서 예외가 되는 자유를 취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에서 모순을 보게 될 것이다.  
 을: 어떤 규범이 실제로 담론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타당성이 확보된다면, 그 규범은 보편타당하다. 그리고 모든 타당한 규범은 각 개별자의 관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일반적인 규칙 준수로부터 얻어지는 결과와 부작용이 모든 참가자들에 의해 수용될 수 있다.  
 병: 어떤 행위가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클 경우 그 행동은 공리에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쾌락과 고통은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지배하며, 공리의 원칙은 이러한 지배에 따라 개인의 모든 행동만이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에도 적용된다.

- ① 갑은 실천 이성을 지닌 존재는 자연적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본다.
- ② 을은 보편적 규범은 합의 당사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상호 주관적 산물이라고 본다.
- ③ 병은 갑, 을과 달리 도덕규범의 도출을 위해 행위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 ④ 갑, 을은 병과 달리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원리가 존재한다고 본다.
- ⑤ 을, 병은 갑과 달리 사회 전체의 유용성을 극대화하는 규범만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56)[17 ebs 수완] (가), (나) 윤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보편화 가능성이란 모든 행위자에게 예외 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도덕 법칙과 관련된다. 그것은 너의 의지가 그 자체로 동시에 너의 준칙을 통해서 보편적 법칙을 만드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는 것이다.
- (나) 보편화 가능성이란 대화와 토론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도덕적 규범과 관련된다. 그것은 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그 규범을 일반적으로 준수할 때의 결과와 부작용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① (가): 도덕성을 행위자의 내면적 품성이나 훌륭한 인격에 둔다.
- ② (가): 도덕 문제 해결의 토대를 덕을 갖춘 사람의 지혜와 판단에 둔다.
- ③ (나): 도덕성을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한 도구적 유용성에 둔다.
- ④ (나): 도덕 문제 해결의 토대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토론 과정에 둔다.
- ⑤ (가), (나): 도덕성을 결과와 무관한 신의 영원한 섭리와 의지의 실천에 둔다.

57)[22 ebs 수완] 알아서 골라.

화자의 의사소통 의도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화자가 자신과 청자 사이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상호 관계가 성립하도록 규범적 맥락에 따라 올바른 의사소통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 화자가 자신의 지식을 청자가 받아들이며 공유하도록 참된 진술을 하는 것이다. 셋째, 화자가 자신이 말한 것을 청자가 믿도록 생각, 의도, 감정, 소망 등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보기

- ㄱ. 담론 참여자들은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의 입장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
- ㄴ. 담론 참여자들은 타당한 규범 도출을 위해 사적인 희망 표현을 억제해야 한다.
- ㄷ. 담론 참여자가 되는 자격은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 ㄹ. 담론 참여자들의 진술이 참되다면 어떠한 담론 주제나 화자의 태도도 허용된다.

58)[22 ebs 수완] 알아서 골라.

갑: 공리의 원칙은 이해 당사자의 행복을 증진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혹은 달리 말해서 그의 행복을 증진하거나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에 따라서 각각의 행동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공리의 원칙은 개인의 모든 행동만이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에도 해당된다.

을: 모든 타당한 규범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모든 개인의 이해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 규범을 일반적으로 따를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와 부작용을 모든 당사자가 수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대안적 조절 가능성의 효과보다 결과와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보기

- ㄱ. 갑: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행동은 공리의 원칙에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 ㄴ. 을: 규범을 지킬 때 발생 가능한 부작용은 담론 과정에서 검토해야 한다.
- ㄷ. 을: 담론 참여자들이 담론 과정을 통해 주관적 견해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ㄹ. 갑, 을: 도덕적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보편적 원리는 존재한다.

59)[14 ebs 수완] 다음 글의 관점과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조화란 존재하지 않고, 국가 간의 권력 투쟁이 국제법, 민주화, 국제 무역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바보이며 심지어 위험하다. 공식적인 주권 국가의 영토 내에서 정치는 잠정적인 도덕적 진보의 산물이고, 입헌 정부라는 사회 구조를 통해 실현된다. 하지만 주권 국가의 영토 밖에서의 정치란 진보가 아니라 생존의 영역에 속한다.

<보기>

- ㄱ. 개별 국가를 규제하는 세계 정부가 필수적이다.
- ㄴ. 세력 균형을 통해 국제 분쟁이 억제되어야 한다.
- ㄷ. 자국이 민주화되어야 국제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 ㄹ. 국제 관계란 안보를 위한 국가들 간의 권력 투쟁의 마당이다.

60)[17 ebs 수완]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가) 갑: 국제 사회는 본질적으로 무정부 상태이고, 국가 간 관계는 갈등 상황을 전제로 시작된다. 국가와 국제 관계는 본질적으로 자기 이익의 관점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한 나라가 패권을 차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힘의 균형이다.

을: 국제 사회에서 힘의 균형은 일시적일 뿐이다. 전쟁은 상호 간의 오해나 법과 제도의 불완전함에 기인하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제 규범의 불완전성을 제거하게 된다면 개별 국가들은 국제 규범의 준수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나)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 ① A: 국가 간에 전쟁을 방지하면 평화를 영구히 유지할 수 있는가?
- ② B: 국가 간 자발적 협력이 국제 분쟁의 억제에 기여하는가?
- ③ B: 국가 간 이익이 충돌할 때 국제기구를 통한 해결이 가능한가?
- ④ C: 국제법과 국제 규범의 한계는 패권 경쟁을 통해 해결해야만 하는가?
- ⑤ C: 국가 간 전쟁은 인간성이 아닌 합리적 조정의 부재로부터 유래하는가?

61)[18 ebs 수완]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지지할 관점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합리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못마땅하겠지만, 세상사라는 것은 인간 본성에 내재하는 여러 욕구가 섞여서 빛어 내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인간 본성에서 나타나는 욕구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루어 나가야지 그러한 것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국제 정치는 본질적으로 다양한 권력 간의 대립되는 이해와 갈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도덕적 원리는 절대로 완벽하게 실현될 수 없다. 오직 다양한 이해의 임시적 균형이나 갈등의 불안정한 타결로 도덕적 원리에 접근할 수 있을 뿐이다.

관점	학생	갑	을	병	정	무
국가 간에는 자국의 이익만 있을 뿐이므로 영원한 우호국은 없다.		V	V			V
견제와 균형 체제를 국제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로 받아들여야 한다.		V	V		V	
국가 간의 전쟁은 상호 균형을 해치므로 어떤 형태이든 정당화될 수 없다.			V	V		V
국가 상호 간 이익은 국제 협약을 통해 서로를 규제함으로써 완벽히 보장된다.				V	V	V

62)[20 ebs 수완] (가), (나)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가) 국제 정치 무대는 국가들 사이의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국제 정치에 존재하는 질서란 세력 균형이 작동한 결과이고, 국가들은 세력 균형을 통해 어느 한 국가가 우세하지 못하게 막는 행동을 한다. 따라서 생존은 모든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국익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  
 (나) 국제 정치 무대의 주요 행위자는 국가이지만, 어떤 문제들의 경우 국제기구가 더 중요한 행위자일 수 있다. 국가 간의 분쟁은 상대방에 대한 무지나 오해, 잘못된 제도의 결과이고,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듯 국가도 이성적 존재이므로 국제법이나 국제 규범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국제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

- ① (가): 국제 사회에서 주권 국가보다 상위의 행위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② (가): 국가 간의 동맹을 통한 세력 균형으로 분쟁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
- ③ (나): 국제기구는 국익을 추구하는 국가의 행위 특성에서 벗어나 행위 할 수 없다.
- ④ (나): 자국의 세력 강화를 위해 경쟁하는 국가들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⑤ (가), (나): 국제 사회의 안정을 위해 자국의 안보가 아닌 국제법의 준수를 중시해야 한다.

63)[22 ebs 수완]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인간은 권력을 추구하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 이기적인 존재이다. 인간의 권력욕은 국제 정치 속에서 몇 배로 증폭되어 나타난다. 개인들은 국가를 통해 개인적 차원에서 억제됐던 권력욕을 누리는 대리 만족을 맛보게 된다. 이 대리 만족은 죄책감을 동반하지도 않는다. 국가와 국가가 만나는 국제 정치는 국가 위에서는 중앙의 권위체가 없는 무정부적 질서 속에서 펼쳐진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 국가의 생존은 보장될 수 없으며, 국가 지도자의 첫 번째 주안점은 국가 생존을 확실하게 하는 일이다.

「 보기 」  
 ㄱ. 국가가 의지할 수 있는 행동 기준으로 국가 이익 이상의 것은 없다.  
 ㄴ. 국제 정치는 개별 주권 국가보다 상위의 중심적인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다.  
 ㄷ. 국가 지도자는 자신의 행위가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ㄹ. 모든 국가 간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도덕 원칙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 6-3

## 세계 평화(칸트, 갈통)(수완 15강)

zola 풀자!!

64)[20 ebs 수완]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적극적 평화는 폭력에 대한 최선의 방어책이며, 어떤 경우에도 평화적 수단으로 성취해야 한다.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없는 상태인 적극적 평화는 억압을 자유로, 착취를 평등으로 대신한다. 또한 강요 대신 대화를, 분리 대신 통합을, 분열 대신 결속을, 소외 대신 참여를 강조하고, 폭력의 합법화를 평화의 합법화로 바꿀 수 있다.

을: 지속적 위협의 중단이 평화 상태의 보장은 아니며, 이는 오직 법률적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다. 모든 법적 체제는 한 민족 안에서 인간들의 국가 시민법에 의한 체제, 상호 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국제법에 의한 체제, 보편적인 인류 국가의 시민으로 보일 수 있는 한에서 세계 시민법에 의한 체제이어야 한다. 이러한 구분은 영원한 평화의 이념과의 관계에서 필연적인 것이다.

- ① 갑: 사회 구조와 문화는 폭력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평화 실현에 기여하기도 한다.
- ② 갑: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으므로 자유 증진을 위한 폭력을 용인해야 한다.
- ③ 을: 영원한 평화 상태는 주권 국가들 간의 자유로운 계약 없이는 구축될 수 없다.
- ④ 을: 영원한 평화를 위해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 조건들에 국한되어 있어야 한다.
- ⑤ 갑, 을: 국가의 통치 방식과 정치 체제는 진정한 평화 실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5)[19 ebs 수완] 틀린 것은?

사회 계약에 기초하여 하나의 국가가 건립되듯이, 국제 관계도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연맹 체제에 기초한 국제법을 통해 평화 상태에 들어설 수 있다. 이 상태에서만 국민의 모든 권리나 국가들의 소유가 확정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참된 평화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연맹의 이념은 모든 국가로 확산되어야 하며, 영원한 평화로의 지속적인 접근은 인간 및 국가의 의무로서, 그리고 권리에 기초한 과제로서 성립될 수 있다.

- ①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제여야 한다.
- ②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한다.
- ③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 ④ 상비군은 자국 안보를 위한 최소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 ⑤ 어떠한 독립 국가도 매매를 통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될 수 없다.

66)[18 ebs 수완]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국가 간의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

첫째, 장래의 전쟁에 대비하여 물자를 비밀리에 간직해 두어서 맺어진 평화 조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둘째, 어떠한 독립 국가도 상속, 교환, 매수, 증여로써 다른 국가의 소유가 될 수 없다. 무릇 국가는 하나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셋째, 상비군은 점차로 철폐되어야 한다. 상비군은 항상 전쟁을 위해 무장을 갖추고 있어서 끊임없이 다른 국가를 위협할 수 있다.

넷째, 국가는 대외적인 보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제도 발행해서는 안 된다. 금권을 가진 국가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쟁을 야기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제도와 통치에 대해 폭력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어떠한 국가도 다른 나라와의 전쟁 중에 장래의 평화 시기에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 틀림없는 다음과 같은 적대 행위, 예컨대 암살자나 독살자의 고용, 항복 조약의 파기, 적국에서의 반역 선동 등을 해서는 안 된다.

- ① 국제법은 자유로운 여러 국가의 연맹 조직을 토대로 해야 하는가?
- ②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폭력 행위는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인가?
- ③ 세계 정부의 강제력으로 국가 간 국제법 적용을 개별 국가에 강제할 수 있는가?
- ④ 휴전 상태는 전쟁의 일시적인 중단에 불과하므로 진정한 평화로 볼 수 없는가?
- ⑤ 영구적 평화를 위해서는 갈등 관계에 있는 국가 간의 채무 관계는 청산되어야 하는가?

67)[14 ebs 수완] (가), (나)에 대한 설명 ㉠~㉣ 중 옳지 않은 것은?

노르웨이의 학자 갈통은 평화의 의미를 (가)와 (나)로 구분하였고, 눈에 보이는 폭력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는 (가)에 비해 사회 구조 자체가 가하는 폭력의 제거까지 포함하는 (나)를 더 강조하였다. (가)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로서 ㉡폭행, 구타, 고문, 테러 혹은 전쟁 등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한편, (나)는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제거된 상태로서 ㉣빈곤, 기아, 정치적 억압, 종교와 사상의 차별 등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가)는 주로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 조성된 상태를, (나)는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의 사용이나 위협이 없는 상태를 더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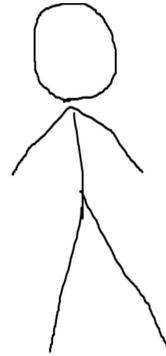
68)[19 ebs 수완] 골라.

평화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전쟁을 포함한 직접적 또는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소극적 평화'라고 정의한다면, 간접적 또는 구조적 폭력 및 문화적 폭력까지 없는 상태를 '적극적 평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전자는 '국가 안보 개념의 평화'로, 후자는 '인간 안보 개념의 평화'로 부를 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목표로서의 평화뿐만 아니라 수단으로서의 평화도 중요시해야 한다. 누구든지 목표로서의 평화는 중시하면서도 수단 또는 과정으로서의 평화에는 소홀히 하기 쉬운데, 평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적 수단으로 성취해야 한다.

- ① 국가 안보 보장은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충분한 조건인가?
- ② 적극적 평화는 소극적 평화가 달성되기 이전이라도 실현될 수 있는가?
- ③ 진정한 평화란 물리적인 폭력이 제거된 상태일 뿐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 ④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전쟁도 불사해야 하는가?
- ⑤ 진정한 평화는 소극적 평화뿐만 아니라 적극적 평화가 달성된 상태인가?

69)[16 ebs 수완] 제시문의 사상이가 지지할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네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라는 원리에 근거한 국제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제법의 이념은 독립해 있는 많은 이웃 국가들의 보립을 전제로 합니다. 비록 이런 상태가 이미 전지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이 상태는 이성의 이념에서 보면 하나의 세계 왕국으로 여러 국가들이 통합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왜냐하면 통치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법률은 점점 더 위력을 상실하고 그리하여 혼을 잃은 전체 정치는 선의 싸움 근절시킨 후에 결국 붕괴해서 무정부 상태로 귀착되기 때문입니다.



- ①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해 국가 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
- ② 국제법은 이성의 명령에 근거한 보편적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 ③ 국제 평화를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독립과 자유가 우선되어야 한다.
- ④ 보편적 우호 관계에 기반한 국제 규범이 국제 사회에 적용되어야 한다.
- ⑤ 모든 국가들을 통제할 수 있는 단일 주권의 연방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70)[20 ebs 수완] 낭겐[인간(人間)]을 골라.

폭력이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모독하는 것이다. 목숨을 앗아가 생존에 대한 욕구를 모독하는 행위, 복지에 대한 욕구를 모독하는 행위, 개인을 사회로부터 소외시키며 정체성에 대한 욕구를 모독하는 행위, 억압과 같이 자유에 대한 욕구를 모독하는 행위 등은 모두 폭력에 해당한다. 이러한 폭력은 다시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으로 구분된다. 직접적 폭력은 폭력의 결과를 의도한 폭력의 주체가 대체로 명백하지만,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은 익명인 경우가 많고 의도되지 않은 폭력까지 포함한다. 또한 문화적 폭력은 종교와 언어, 교육의 내부에 존재하며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한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개인의 잠재적 능력의 실현이 보장된 상태를 평화로 볼 수 있다.		√	√		√	
가해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폭력은 평화 상태의 위협이 되지 못한다.		√		√		√
폭력은 항상 문화적 폭력에서 시작되어 구조적·직접적 폭력으로 확대된다.				√	√	√
종교와 언어에 내재된 상징적 차원의 폭력은 물리적 폭력을 용인할 수 있다.			√		√	√

71)[22 ebs 수완]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맹 체제에 기초해 있어야만 한다. 국제법의 개념에는 본래 전쟁으로의 권리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전쟁을 방지하면서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연맹 체제를 통해 법을 현오하는 적대적인 경향성의 흐름을 중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평화 연맹은 모든 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고자 한다.

을: 국내법의 경우 법을 통한 지배는 유효한 행동 지침이 된다. 일단 입법화되면 기존의 법적 질서와 강제력의 틀 속에 자리매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법적 질서와 강제력의 틀이 국제 정치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 정치에서 법의 지배란 단지 극히 위태로운 세력 균형에 의해서만 지탱될 수 있을 뿐이다. 국제법의 지배란 비효율적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 ① 갑: 국가들 간에 도덕적 우월성을 갖는 국가만이 정복 전쟁의 권리를 가진다.
- ② 갑: 국제법에 따라 많은 민족들이 한 국가 안에서 하나의 국민을 이루어야 한다.
- ③ 을: 국가들 간에 평화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도 폭력 사용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 ④ 을: 국제법은 이익 공동체나 세력 균형이 없는 곳에서 평화 유지에 유효한 방법이다.
- ⑤ 갑, 을: 국가들 간에 분쟁 해결을 위한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72)[22 ebs 수완]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폭력의 반대가 평화라면 문화적 폭력의 반대는 직접적 평화와 구조적 평화를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는 데 봉사하는 문화의 단면들을 의미하는 문화적 평화가 될 것이다. 문화적이고 적극적인 평화는 폭력의 합법화를 평화의 합법화로 바꿀 수 있으며, 종교, 법, 예술 등이 적극적인 평화의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을: 평화 상태는 민족들 상호 간의 계약 없이는 구축될 수도 없고 보장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 연맹이라는 특수한 연맹이 필요하며, 이 연맹은 평화 조약과는 구별된다. 평화 조약이 한자 하나의 전쟁을 종식시키고자 한다면, 평화 연맹은 모든 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 【 보기 】
- ㄱ. A: 진정한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가?
  - ㄴ. B: 구조적 폭력의 주요 형태인 억압과 착취는 의도적으로만 발생하는가?
  - ㄷ. B: 문화적 폭력은 착취나 억압을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게 하는가?
  - ㄹ. C: 평화 연맹을 구성하는 국가들은 독립된 주권을 계속 유지해야만 하는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73][22 ebs 수완]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도덕적인 정치가는 사람들이 예방할 수 없었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성에 의해 모험으로 제시된 자연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삼는다. 이런 행동이 엄청난 자기희생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이를 행한다. 참된 정치는 도덕성에 충실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순수 실천 이성의 나라와 그 나라의 정의를 위해 힘쓰면 영원한 평화의 은혜는 저절로 받게 될 것이다.

을: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이라면 도덕가들과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의 통찰을 모두 정당하게 다루어야 한다.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인간 사회에서 강제력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을 사용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쓸데없는 갈등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사회를 구원하고자 할 것이다. 정치 영역에서 이성과 양심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되며, 정치적 압력도 병행해서 사용해야 한다.

- ① 갑: 가장 높은 수준의 입법적이고 도덕적인 힘은 이성임을 인식해야 한다.
- ② 갑: 정치와 보편적 도덕 원리는 현실에서 합치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 ③ 을: 합리적 이성과 순수한 도덕성은 사회적 갈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 ④ 을: 어떠한 국가도 강제성에 의해서만 국가를 보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⑤ 갑, 을: 개인의 선의지는 인간의 사회적 삶과 정의 실현에 반드시 필요하다.

# 6-4

해외 원조(수완 15강)

zola 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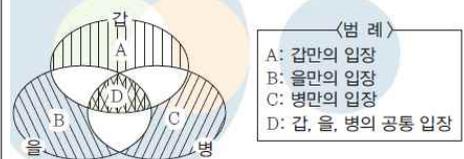
74][14 ebs 수완]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는 데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고, 그러기 위해 상당한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그러나 매일 수천 명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있으나 마나 한 물건을 사는 데 돈을 쓰면서 기부를 주저하고 있다. 이것은 부도덕한 일이며 전 지구적 의무를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으려는 행위일 것이다.
- 이제 우리가 놓인 상황을 생각해 보자.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기부함으로써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아마 신발 한 켤레를 사는 돈보다 조금 많으리라. 하지만 우리가 별로 필요 없는 일에 쓰는 돈, 즉 음료수, 외식, 옷, 영화, 콘서트, 휴가 여행, 새 자동차, 집 꾸미기 등에 들이는 돈은 얼마인가? 그런 데 돈을 쓰면서 구호 단체에 기부하지 않으므로써,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아이를 죽게 내버려두고 있지는 않은가?

<보기>

- ㄱ. 빈곤한 사람들에게 돈이나 식량을 공짜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ㄴ. 세계의 극빈자들을 돕기 위한 기부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행해져야 할 의무이다.
- ㄷ. 기부는 자선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선택에 맡기되 도덕적으로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ㄹ. 자신과 가족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도 남는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해외 원조에 동참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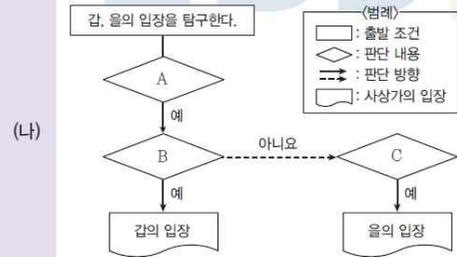
75][17 ebs 수완] (가)의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약소국들은 제국주의적 수탈로 빈곤한 처지에 있다. 약소국들의 빈곤에 책임이 있는 부유한 나라들은 약소국에 원조를 해야 한다.</p> <p>을: 자선을 베푸는 것은 실천 이성의 명령으로서 도덕 법칙에 따른 선행의 의무에 해당하므로 원조를 해야 한다.</p> <p>병: 개인이 자신이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는 개인에게 맡겨야 한다. 따라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선은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지만 의무로서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p>
(나)	

- ① A: 약소국에 대한 원조는 자율적 선택의 문제이다.
- ② B: 원조는 선행의 의무라는 도덕 법칙을 따른 행위이다.
- ③ B: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행위는 칭찬할 만한 것이다.
- ④ C: 원조를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의 차원에서 원조를 해야 한다.
- ⑤ D: 자국의 장기적 이익 확보 차원에서 원조를 해야 한다.

76) [18 ebs 수완] 골라!

- (가) 갑: 만민에게는 정의롭거나 적정 수준의 정치 체제와 사회 체제의 유지를 저해하는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는 다른 만민을 원조할 의무가 있다. 국제 원조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라고 부르는 심각한 정치, 사회 문화적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이 그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스스로의 일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 을: 만민에게 원조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할 전 지구적 의무이다.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남는 소득이 있으면 소득의 일부를 기부하여 세계의 빈민을 도와야 한다. 내가 돕는 사람이 나에게서 내 이웃의 아이인지,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인지는 도덕적으로 아무런 차이도 없다. 굶주림과 죽음에 대한 방치는 인류 전체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보기

- ㄱ. A: 원조는 인류 전체의 복지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개개인의 소득을 높여 주는 것인가?  
 ㄴ. B: 원조의 직접적인 목적은 사회 구조의 개선에 있는가?  
 ㄷ. C: 절대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은 원조의 대상이 되는가?  
 ㄹ. C: 원조로 인해 발생하는 지구적 차원의 유용성 증진을 고려해야 하는가?

77) [18 ebs 수완] 그림은 갑, 을 사상가의 대화이다. ㉠에 들어갈 내용만을 <보기>에서 골라.

원조는 자율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개인은 사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국가가 원조를 위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은 윤리적 의무입니다. 당신의 관점은 ㉠은 점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보기

- ㄱ. 국가적 경제에 따라 원조의 대상을 차별하고 있다  
 ㄴ. 국제적 분배 정의의 문제에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ㄷ. 고통받는 사회의 정치 체제가 바뀌도록 도와야 함을 무시하고 있다  
 ㄹ. 원조는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윤리적 의무임을 모르고 있다

78) [19 ebs 수완] 골라.

- 갑: 자유 사회에서 개인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 원조를 강요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갖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을: 질서 정연한 사회의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한다. 원조의 의무는 어떤 사회가 정의로워지거나 적정 수준의 기본 제도들을 가질 때까지 유효한 것이다.
- 병: 기아의 원인은 인구 과잉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이다. 선진국 사람들은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자신들의 이익 관심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넘쳐 나는 식량을 원조함으로써 인류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켜야 한다.

- ① 갑은 풍요한 사회의 시민이 가난한 사회의 시민을 돕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② 을은 최빈국의 고통받는 사람의 처지를 개선하는 것이 원조의 목적이라고 본다.  
 ③ 병은 원조의 궁극 목적은 인류 전체의 복지를 평준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④ 갑은 을과 달리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원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⑤ 을은 병과 달리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사회의 시민들은 원조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다.

79) [20 ebs 수완] 다음 강연자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만약 어떤 사회가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조직되고 통치된다면, 천연자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천연자원이 부족해도 잘 운영되는 국가가 있는 반면, 천연자원이 풍부해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국가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결정적 요소가 바로 정치 문화입니다. 우리가 원조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단지 재원의 배분만으로는 기본적인 정치적·사회적 부정의를 교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 인권에 대한 강요는 무능한 정치 체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복지에 대해 무감각한 통치자들의 행동을 바꾸도록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통받는 사회가 자유주의적이거나 적정 수준의 제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 ① 경제적 부의 수준이 높지 않은 국가들의 인권 상황은 개선될 수 없다.  
 ② 천연자원의 보유 여부는 한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을 야기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③ 빈곤한 질서 정연한 사회의 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제 사회의 원조가 필요하다.  
 ④ 적정 수준의 정치 체제를 가진 자원 빈국은 자국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⑤ 국제 사회의 만민은 질서 정연한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원조할 의무가 있다.



사상가는 로크임.

50) ㉓

51) 가, 나, 다

52) ㉑

53) 가, 나

54) 가, 나

55) ㉒

56) ㉔

57) 가, 다

58) 가, 나, 다

59) 나, 다

60) ㉕

61) 갑

62) ㉑

63) ㉔

64) ㉒

☛ Zola Guide 제시문에서 선지로 나와도 맞출 수 있게 준비할 것.

65) ㉔

66) ㉓

67) 모

68) ㉕

69) ㉕

70) 을

71) ㉓

72) ㉓

73) ㉒

☛ Zola Guide 같은 칸트, 을은 니추어임.

74) 나, 다

75) ㉒

76) 나, 다, 라

77) 다, 라

78) ㉕

79) ㉔

80) ㉔

81) ㉕